

“ 모퉁잇돌이 되자 ”

■ 이종윤 원로목사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하면서,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요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감사예배를 드린다.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잇 돌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모퉁잇돌은 주춧돌 노릇을 한다.

주춧돌은 기둥을 떠 고이고 집을 버티고 있어서 건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존재다. 만일 그 집에서 주춧돌을 뽑아 버리거나 처음부터 주춧돌이 없이 집을 세운다면 그 집은 미구에 허물어질 것이 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퉁잇돌은 그 집의 초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잇돌이시다. 즉 그는 우리의 뿌리요 시작이요 근본이요 제일 원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그리고 정치이든 문화이든 산업이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춧돌이 없이 세워진 건물처럼 위험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로부터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해서 있기 때문이다.(롬11:36)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없는 설계는 하지 말아야 한다.

모퉁잇돌은 연결의 역할을 한다.

건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자재가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이 목재이든 석재이든 철재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집은 심히 위험하다. 건물의 연결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모퉁잇돌은 두 개의 다른 담벽을 하나로 굳게 연결시켜 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해서 그 건물에 사용된 모든 자재들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잇돌이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와 당신을, 동과 서를, 그리고 남과 북을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는 유일한 모퉁잇돌이시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 (엡2:21) 모퉁잇돌 되신 예수 안에서 분열된 사회, 교회, 개인간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모퉁잇돌은 은밀한 희생자 노릇을 한다.

모퉁잇돌은 건물을 위해서 필요불가결의 절대적인 존재이면서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기둥 밑에 깔려 묵묵히 제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자족해 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잇돌이시다. 우리를 위해 구유 위에 오셨건만, 사람들은 가난한 소치라고만 생각했고, 소외당한 자를 위해 병자와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셨건만 신분이 미천한 분이라고만 여겼고,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그의 죄값이라고만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주춧돌 때문에 건물이 유지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사가 지탱해 나가는 것을 아는 이는 안다. 그는 은밀한 희생자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과 정신과 삶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회 속에서 작으나마 하나의 모퉁잇돌이 되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어떻게 우리가 모퉁잇돌이 될 수 있을까?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국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의 존재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불신과 불화의 도가니 속에서 화합과 연결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좀처럼 자기의 공격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한 희생자로 묵묵히 봉사하는 일이다. 새해의 소원은 새 역사의 창조이다. 어디서나 새 역사가 창조되기 위해 어디서나 모퉁잇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쫓아갔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용마루보다 모퉁잇돌이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1394호] 2013년 12월 21일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 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15:35-38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Jerusalem Choir
Sermon	“God Gives It a Body” Rev. Euichang Kim
* Hymn	286 [Come into my heart, blessed Jesus]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역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강해정, 우상식)김경옥(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선)일본, 김낙형 오정혜(캐나,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보리), 필리몬, 프란시또, 수레리, 수비쓰, 일로롱, 비사우(브도, 보디소프, 린록, 수린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민(홍성일)필리우, 이재을(백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백재연)미디카(브카리)

제29권 제50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9년 12월15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희망 ”

■ 사 43:18-19
 여러분은 어떠한 관점으로 시간을 바라보십니까?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 과거 부정의 관점과 미래지향의 관점**
 과거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삶 중에서 부정적인 일들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과거에 자신과 관련된 일들과 행동에 대해서 자주 후회를 합니다. 옅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평범했던 일상적인 일들까지도 재구성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일에 열정을 갖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이와 반대로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그들의 삶을 덮치더라도, 또는 자신의 눈앞에 어떠한 유익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지라도, 자신이 이 고난의 터널을 참고 지난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과 희망의 삶을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가장 먼저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요셉과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시간에 대한 관점과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미래지향적인 삶**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미래로 나가게 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시 89:3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오직 믿으며 신앙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의지해서 불투명한 미래에 희망의 여정을 걸었던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 43:18).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미래도 없는 것이므로, 과거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에 머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 불행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실의 삶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한걸음 앞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 43:19)
 이 같은 선언은 창조질서를 다스리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능동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맺는 말
 사랑하는 서울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곧 다가올 어느 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며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어떠한 불의한 세력이 우리들의 삶과 교회를 힘들게 해도, 또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곤경에 처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사막에 강을 내어 우리들을 건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 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경영호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찬 양 예 배

-성탄축하 찬양예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사 62:1-2 인 도 자
 찬 송 105(105) 다 함 께
 기 도 최형열 장로
 성 경 요 8:12 인 도 자
 세례식 이종윤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생명의 빛을 따르는 자” ... 설 교 자
 특별찬양 할렐루야찬양대
 * 찬 송 62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이영욱 권사
 성 경 삼하 7:8-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거룩한 백성의 기쁨”... 안영로 목사
 * 찬 송 Hymn 413(470)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최형열 장로, 지휘: 류충기 집사)가 준비한 성탄축하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수요 I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교 회 소 식

◆ 모 임

1. 교사 총회 / 15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minster홀)
2. 에스더 전도회 월례회 / 15일(주) 교사 총회 후 101호(웨스트minster홀)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금일 세례식 실시 / 12월 세례식이 금일 15일(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010-7743-32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3. 의료 상담 / 이번 주 상담은 노선균(홍부외과), 정현구(치과)입니다. (의료상담 오전 10시-11시)

다음 주 상담은 김봉배(통증), 김관섭(영상의학)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전화 예약 010-2728-5939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 전화 예약 010-2376-3892

15. 오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영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 오늘 세례식에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39명	207명	203명	1,249명	15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2월8일	헌 금	32,363,170	
	특별예배비		1,381,590
	찬양운영비		200,000
	교회학교운영비		1,640,000
	교구운영비		13,000
	출 판 비		3,315,900
	복리후생비		187,860
	통 신 비		562,120
	수도광열비		364,000
	차량유지비		2,163,500
	소모품비		266,770
	수선유지비		573,960
	환경유지비		111,600
	식당운영비		1,801,570
	합 계	32,363,170	12,581,870